

복음과 율법의 사다리

© 아세르 인트레이터, 2009년 2월 2일

복음의 메시지와 유대 전통 사이의 관계는 간단히 네 개의 대 (rungs) 혹은 우선순위로 된 사다리로 그려볼 수 있습니다.

1. 은혜로 받는 구원
2. 윤리 법
3. 의식 법
4. 종교적 전통

은혜로 받는 구원

예수아께서는 우리가 받을 형벌을 십자가에서 받으시고 영생을 주시려 죽음에서 일어나셨습니다. 이 메시지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합니다. 우리는 사랑이시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존재들입니다. 우린 범죄했습니다. 모든 의는 그 분께로 말미암습니다. 그 분의 의를 믿지 않고는, 어떤 인간도 스스로 의로워질 소망이 없습니다. 이것이 로마서의 중심 주제입니다.

윤리 법

그렇기에 은혜로 받는 구원은 윤리 법보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윤리적 기준은 필수적입니다. 그러면 누가 그 기준들을 제정했습니까? 완벽하게 의로우신 분께서만 친히 그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윤리적 기준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하나님의 윤리 기준은 절대적이고 모든 인간에게 적용됩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분의 윤리 규범을 가장 간결하게 열거한 것이 십계명입니다(마 19:17 참고).

율법서 내에도 더 중요한 계명들이 있고 덜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예수아께서 우리가 “율법의 더 중요한 요소들- 정의와 자비와 신의”를 버려선 안 된다고 타이르셨습니다 (마 23:30).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기 위해 우리는 어떤 부분들이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지를 이해해야 합니다.

의식 법

어떤 것이 제일이고 어떤 것이 둘째인가를 구분하는 기본적 기준은 윤리 법 (사랑)과 의식 법 (상징들)입니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자기 몸 같이 사랑하는 것이, 모든 번제와 희생제보다 더 낫습니다” - 막 12:33.

의식 법 혹은 언약의 “표징들”은 윤리 계명들처럼 구속적이지 않습니다. “할례 받는 것도 아무 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 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 고전 7:19. 할례가 계명 아닙니까? 성경에 기록된 의식 법이라는

면에서는 그렇지요. 하지만 절대적 윤리 법에 속하지 않는다는 면에선 그렇지 않습니다.

할례, 절기, 음식 법은 거짓말, 도적질, 간음, 살인을 금하는 계명들과 같은 수준에 있지 않습니다. 의식 법보다 윤리 법이 우선적임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 율법 자체에 대한 치명적 오해이고, 그로 인해 종교적 위선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예수아께서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잘못 해석하여 불순종하게 된다고 꾸짖으셨습니다. "맹인 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 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 마 23:24. (안타깝게도 기독교계의 많은 이들이 율법을 아예 거부함으로 인해, 범죄와 윤리적 타락에 빠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복음을 전파하는 자들까지 그렇습니다.)

종교적 전통

유대 법의 의식적인 면을 또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성경적인 것과 랍비들이 부가한 것들이지요. 성경의 상징들은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제정하신 것으로 당신의 왕국의 계획에 대한 영적 메시지가 있습니다. 랍비들이 추가한 것들은 문화적인 부분으로 직접적 권위가 없습니다.

전통을 거룩한 법의 수준으로 승격시키는 것은 극히 위험합니다. 예수아께서는 이것을 (이사야 29:13을 인용하여)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이라 칭하시며, 물으십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 마 15:3. 종교적 전통을 하나님의 율법과 동격화하는 것은 모든 종교- 유대교나 기독교, 이교를 무론하고- 에서 발견되는 악입니다.

종교적 전통은 전혀 구속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사랑으로 대상 민족의 문화를 품어야 합니다. 이것은 특별히 유대 민족에게 적용이 되는 것인데, 그들은 구약 (타나흐)에 기반하여 종교적 문화를 발전시켜 왔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구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 고전 9:20.

요약:

1. 예수아를 통한 구원의 메시지는 우리에게 최고로 우선되는 것입니다.
2. 인간으로 말미암은 선행은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3. 하나님의 절대적 윤리 법은 모든 인류에 적용됩니다.
4. 윤리 법은 의식 법보다 고등합니다.
5. 성경적 상징 혹은 의식들은 왕국에 대한 영적 진리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6. 종교적 전통은 전혀 구속력이나 권위가 없습니다.
7. 종교적 전통을 윤리 법의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은 위험한 오류입니다.
8. 다른 이의 문화를 사랑으로 품는 것은 그들과 영생을 나누는 데에 중요한 다리가 됩니다.

금 사과

다음의 성경의 비유를 생각해 보십시오.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 쟁반에 금 사과니라" - 잠 25:11. 우리가 해야 할 말이 금 사과에 비견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말하는가는 은 쟁반에 비견됩니다. 메시아닉 운동에 속한 우리들은 할 말의 유대적 형식에 너무나 사로잡혀, 메시지의 중심 자체를 놓칠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유대적 문화와 정체성은 메시지가 아닙니다. 때로 우리는 금 사과 없이 은 쟁반을 대접해 왔습니다.

한편, 배경은 중요합니다. 프랑스 인이 영국인에게 생선을 주려 한다면, 상자에 poisson 뿌와종 (불어로 "생선")이라 써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영국인은 당연히 그것을 poison 포이즌(영어로 "독")으로 볼 것입니다. 많은 경우 선의를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영생의 "생선"을 저희 민족에게 가져다 주려 하지만, 저희 민족은 그것을 독으로 봅니다.

저희는 옳은 메시지를 옳은 표현 방식으로 전하길 원합니다. 옳은 내용을 옳은 문맥 가운데 전하고 싶습니다. 예슈아의 복음을 유대적 역사 배경 가운데서요.

Paul Byungyeon Go